

순경 제1차 한국사 기출해설

해설 : 전한길 교수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원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동검
- ②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③ 여주 혼암리 유적 - 오수전
- ④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1. 【정답】 ③

[해설] 부여 송국리는 청동기시대의 유적, 양양 오산리와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며 여주 혼암리 유적은 탄화된 볏씨가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며 오수전은 철기시대의 중국 한나라 화폐로 청동기시대의 유적과는 관련이 없다.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②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2. 【정답】 ③

[해설] 고조선에 대한 문제로 기원전 194년 위만은 당시 우거왕이 아니라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로서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할 때의 왕이다. 그리고 ①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라는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7차 교육과정 고등국사 교과서에서는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삼국지 위서’의 중국입장에서는 “夷(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 출제자는 단순히 “오랑캐”라고 번역해서 출제했지만 이것을 아무런 출처도 밝히지 않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에 수록한 ‘조선인’을 일방적으로 ‘오랑캐’라고 출제한 것은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다.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헤아린다. 수해나 한재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③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3세기 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3.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④ 부여는 3세기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한 것이 아니라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4. 【정답】 ②

[해설] 삼국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 장수왕의 영토 확장은 5세기,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것은 6세기 법흥왕 때(532), ㉡ 백제 성왕의 사비천도와 남부여로 국호를 바꾼 것은 538년, ㉠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 건립은 555년, ㉤ 대가야가 신라에 진흥왕에게 병합된 것은 562년이다.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거서간·차차웅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 ㉡ 이사금 - 연장자의 의미로, 박·석·김 3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
- ㉢ 마립간 -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 강화
- ㉣ 왕 - 지증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5. 【정답】 ④

[해설] 신라 왕호에 대한 문제로 ‘연장자’의 의미인 이사금과 ‘대수장’의 의미인 마립간은 왕권강화를 의미하며 지증왕부터는 중국식인 왕(王)호가 사용되었다. 제시된 자료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하지만, ㉠ ‘거서간·차차웅-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거서간’은 ‘신령한 대인’의 뜻이고 ‘차차웅’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무(巫) 즉, 무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차웅의 명칭을 사용한 ‘남해’의 경우 ‘정치적 군장이자 제사장’을 겸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7차 교육과정 고등국사 교과서에서는 2002년 발행 때는 상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거서간과 차차웅으로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었고..’라고 되어 있지만 2006년에 개정되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서간과 차차웅에 대한 용어가 빠지고 단순히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된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며 2011년 발행 고등국사 교사용 지도서 역시 거서간과 차차웅에 대해서 ‘거서간은 불구내, 즉 태양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신령한 제사장, 군장, 대인이라는 뜻이다. 차차웅은 무(巫)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군장의 칭호에 샤먼적 성격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그 외 어떤 사료에도 ㉠처럼 표현된 곳은 없다.

6.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그 영역에는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였다.
- ㉡ 발해는 이중 기단에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흙으로 구워 만든 이불병좌상이 많이 보인다.
- ㉢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으며,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락에 수령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 ㉣ 대조영이 698년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국호를 ‘진(震)’이라 하고 건국하였으며, 2대 무왕에 이르러 ‘발해’로 개칭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정답】 ④

[해설] 발해에 대한 문제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 발해 탑은 길림성의 영광탑이 대표적인데 5층 벽돌탑이다. 이중 기단에 3층 석탑은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양식이다. ㉢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락에는 수령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말갈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촌장을 매개로 지배하였다. ㉣ 대조영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국호가 ‘진’국이었으나 뒤에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713년부터 진국대신에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무왕의 통치기간은 719년부터 737년까지 이다.

7. 다음 중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②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

성되었다.

③ 신라에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④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수도 뿐 아니라 농촌 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하였다.

7. 【정답】 ④

[해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에 대한 문제로 삼국시대 소지왕 때 금성(경주)에 시장이 설치되었고 지증왕 때 감독기관인 동시전이 설치되었으며 통일신라 효소왕 때는 동시 외에도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을 뿐 농촌 각지에 시장이 번성한 것은 아니다.

8. 다음은 고려 성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 ㉣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 ㉤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정답】 ②

[해설] 고려 성종의 업적을 묻는 것으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고려 성종은 당나라 3성 6부를 받아들이면서 고려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여 2성 6부제를 토대로 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6두품 출신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9.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 ②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③ 최우는 문무 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
- ④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9. 【정답】 ③

[해설] 고려 무신 정권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로 최우가 설치한 기구 중 인사 행정을 담당한 것은 서방이 아니라 정방이고 문신 등용을 위한 기구로는 서방을 설치하였다.

10. 다음의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와 신이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일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하니 이 일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오.

- ① 부석사 무량수전
- ② 광개토왕릉비
- ③ 석촌동 고분군
- ④ 법주사 팔상전

10.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일부 내용이다. 이규보는 고려 무신집권기에 활동한 문신이다. 당시 비슷한 시기의 문화유산으로는 13세기 초에 건립된 주심포 양식의 부석사 무량수전을 들 수가 있다. ② 광개토왕릉비는 5세기초, ③ 석촌동 고분은 고구려 무덤 양식과 비슷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백제 초기의 무덤이다. ④ 법주사 팔상전은 규모가 거대한 다층구조로 된 불교 건축으로 17세기에 건립된 것이다.

11.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걸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 회의기구이다.
- ②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다.
- ③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이다.
- ④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11.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는 조선후기 국정을 총괄하였던 비변사에 대한 설명이다. ① 비변사는 삼포왜란 직후에 임시로 설치되었고 명종 때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 되었다.

12. 다음은 조선 시대 붕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①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②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③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④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정답】 ④

[해설] 조선시대 봉당에 대한 문제이다. ④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였으며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였다.

13. 다음은 조선 시대 양반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 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13. 【정답】 ③

[해설] 조선시대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이다. ③ 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은 기존의 연분9등법 대신에 전세(토지세)를 조정하여 1결당 4두로 정액화 한 것이다. 전세량을 줄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줄어든 전세량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연소모비와 운반비와 같은 명목으로 부가세를 징수했는데 지주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가 소작농에게 전가되므로 인해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었다.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14. 【정답】 ②

[해설] 고려와 조선후기 가족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선후기 성리학적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처가살이(남귀여가혼) 대신에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제사는 반드시 큰 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15.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역사서는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에 참여한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이다. ② 기전체에 대한 설명이고, ③ 조선후기 이종휘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에 대한 설명이며, ④ 조선후기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16. 다음은 조선 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6. 【정답】 ①

[해설] 조선시대 의궤는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조선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1년에 제작된 선조의 정비였던 의인왕후 박씨의 장례에 대한 의궤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에 있던 의궤가 프랑스로 약탈되기도 했으나 2011년에 임대의 형식으로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다.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제 제정
-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③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④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17. 【정답】 ②

[해설] 대한제국기의 광무개혁에 대한 문제이다. 광무개혁은 구분신참의 원칙 아래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전제황권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였다.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별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①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③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18.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의 일부 내용이다.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도 갑신정변 때 맺은 텐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이 문제는 텐진조약이 임오군란 때가 아니라 갑신정변 때 맺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답을 쉽게 찾았겠지만 이를 몰랐다면 ④번을 정답으로 생각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유는 우금치 전투 후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패한 '보은전투'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보은전투는 고등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는 물론이고 어떤 공무원 수험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

에 집중 지원되었다.

19. 【정답】 ①

[해설] 일제시대의 경제침탈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은 인정해주었지만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등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 중 두 정치인이 발언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 뿐이다. 이 욕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보기>

- ㉠ 포츠담선언
- ㉡ 제주 4·3 사건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 남북지도자회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각각 1946년 6월에 발표된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1948년 2월에 발표된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글이다. 이 두 자료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묻는 문제로 사건 하나 하나의 연도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만 하는 고난도 문제이다. ㉠ 포츠담선언은 1945년 7월, ㉡ 제주도 4·3사건은 1948년 4월,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은 1947년 11월,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은 1947년 10월, ㉥ 남북지도자회의는 1948년 4월이다.